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726호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산업]
갤S21 통했다
삼성전자 1분기
시장점유율 67%
06

Life
[라이프]
밤 길어지고
하늘길 열리고
위스키 숨통 트이나
L1

공공장소 금주 "개인의 자유 제한" vs "사회적 문제 방지"

서울시, 공적 장소 금주 의견 모아
한강공원 등 금주 찬반 의견 팽팽
시민 의견 수렴 후 관련 정책 마련

지난 4월 10일 오후 시민들이 잠원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의복 전문가들은 옷차림 전략으로 티피오(TPO)를 제안한다.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 때와 장소를 가려 옷을 갖춰 입으란 의미다. 옷을 입을 때뿐만 아니라 술을 마실 때에도 티피오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서울시가 공적 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30일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공공장소 금주, 어떻게 생각하세요?"란 질문에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213명이 목소리를 냈다. 공감을 많이 받은 순으로 상위 5개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금주 반대 3건, 찬성 2건으로 음주 제한을 달가워하지 않는 쪽이 더 우세하다.

공감수 1위를 기록한 김모 씨의 의견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였다.

시민 홍모 씨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무분별한 음주로) 무법지대로 바뀌는 것, 악취가 나는 것,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다. 술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니와,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할 건 아니잖나"는 댓글을 달아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음주까지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권리침해"라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금주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윤모 씨 의견은 공감수 4위를 나타냈다. 윤 씨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을 수 없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술에 너무 관대하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추태를 부려도 경범죄 처벌을 하거나 가벼운 훈계조치로 끝난다"면서 "아예 공공장소에서 금주를 시키면 술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다음으로 황모 씨 의견이 다섯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는 "한강 시민공원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며 "금주에 찬성한다"고 했다.

공감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주목할만한 반대파들의 주장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집 앞 공원 때문에 매우 시끄러우니 공원도 폐쇄시켜 달라", "한강의 치맥은 외국인들이 관광 코스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다. 많은 시민의 건전한 힐링 문화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뜩이나 힘든 인생에 한강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까지 뺏지 말라" 등이 있었다.

이외에 눈에 띄는 찬성 의견으로는 "술이 술로 안 끝나고 다툼, 시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술은 술집에서 마시자",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는 방종이다. 음주로 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주 조치해 달라" 등이 제시됐다.

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공적 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조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마디 거들고 싶은 시민은 민주주의 서울에 접속해 토론에 참여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전월세 보증금 지원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보증금 최대 6000만원 지원
무주택가구 月소득액 100% 이하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집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이면 보증금의 절반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일은 9월 16일로 예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무주택시민이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한강교량 조명 가동… 여름 밤 수 놓는다

6개 교량 추가 설치·점등시간 연장

한강교량의 경관조명이 7월부터 모두 가동에 들어가 여름 밤 한강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서울시는 경관조명을 운영하는 한강다리를 종전 20개에서 26개로 늘리고 점등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아차산대교 ▲마포대교 ▲천호대교 ▲두모교 ▲서호교 ▲노량대교 총 6개 교량에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작년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한강교량 29개 중 26개가 야간 조명을 밝히게 된다. 나머지 3개는 철새보호구역 등을 이유로 밤늦게 불을 켤 수 없는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점등 시간은 일몰 후 15분부터 자정까지다. 이전에는 밤 11시까지만 불을 켰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점등 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늘린다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4%

김포시는 오늘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의 시설자금 지원과 '코로나피해기업'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출금리를 최대 4%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신설된 시설자금은 융자금액 10억 원 이내, 융자기간 5년 이내로 관내 곳곳에 위치한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 환경시설 및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입주를 활성화시키고자 관내 개별입지공장이 산업단지로 입주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와 환경오염 등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성기 기자 ask9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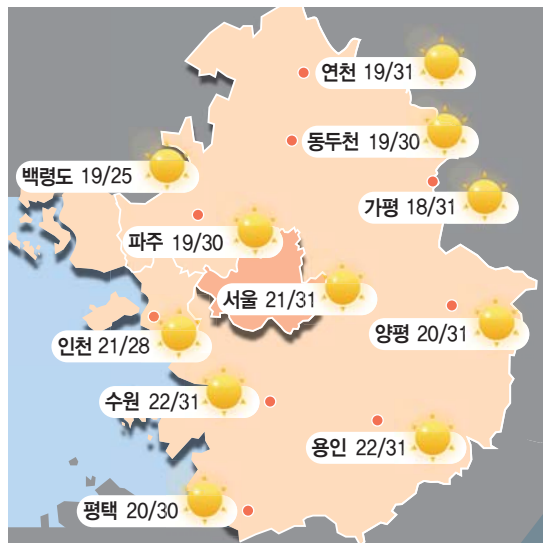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4 | 해짐 / 19:57

7월 1일 (木)
음력 : 5월 22일

수도권 날씨
21 ~ 3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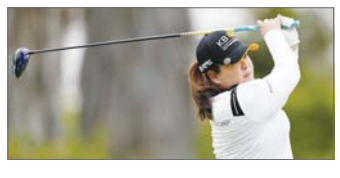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베이징 지하철서 오늘부터 디지털 위안화 결제 가능
▲美 일부 지역, 델타 변이 공포에 "백신 맞았어도 마스크 써라" /사진 뉴시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공모가 확정 …14달러
▲도쿄올림픽 축구 와일드카드 황의조·김민재·권창훈



▲박인비 "골프대표팀 선발 자랑스럽다 …올림픽 2연패 이루겠다" /사진 뉴시스
▲흥국생명,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등록 포기